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핵심정보 처리 능력)은 30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OECD 평균보다 낮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확대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이 급격히 저하하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평생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생학습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34개 국가 중 중간 수준이다.
-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9.8%에서 2020년 42.1%로 10%p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 직업 관련 교육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
-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재직자 중심의 단기간 교육이어서 1인당 참여시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 직업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심각해서, 평생학습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2013년에 비해 2020년에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 직업 관련 평생학습의 성과를 참여 목적에 대한 도움 정도로 파악할 경우, 그 성과가 비교적 긍정적이며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기존의 숙련이 진부해지고, 요구되는 숙련이 변화함에 따라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숙련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숙련 습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령기에 학교에서 배운 숙련만으로 평생 일할 수 있던 시대가 가고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해야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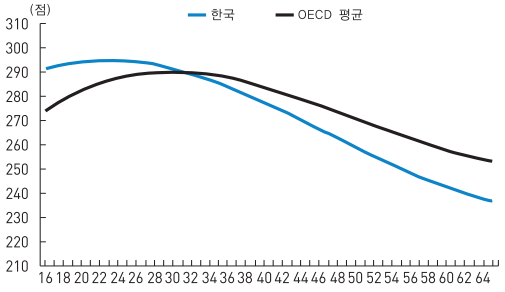
또한 중간 숙련 수준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간 숙련 보유자의 숙련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인적자본의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림 Ⅳ-25]에 잘 나타나 있다. 중등 및 고등교육기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보여주지만, 이런 모습이 성인기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성인의 역량(문해력, 즉 핵심정보 처리 능력)이 30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아지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OECD 평균 수준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초중등 단계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고등교육 및 직업생활에서의 재교육 투자가 부족한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이런 현실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림 Ⅳ-25] 한국과 OECD의 연령별 역량 수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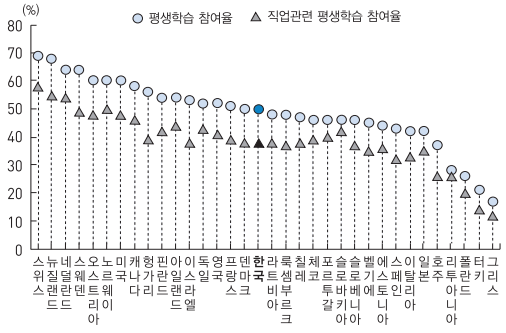


주: 1) 역량은 문해력(literacy)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개인의 핵심정보처리 능력임.
출처: OECD, *Skills Outlook*, 2013.

[그림 Ⅳ-26]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50%인데, OECD 34개 국가 중 16위에 해당된다. 스위스가 69%로 가장 높고, 뉴질랜드(68%), 네덜란드(64%), 스웨덴(64%), 오스트리아(60%), 노르웨이(60%) 등이 60% 이상의 높은 참여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60%), 캐나다(58%), 헝가리(56%), 핀란드(54%), 아일랜드(54%), 이스라엘(53%), 독일(52%), 영국(52%), 프랑스(51%)도 우리보다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18위로 더욱 낮아진다.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38%이며, 50%를 상회하는 스위스(58%), 뉴질랜드(55%), 네덜란드(54%), 노르웨이(5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그림 Ⅳ-26] OECD 평생학습 참여율, 2010년대 초중반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국가마다 조사 시점이 2012년, 2015년, 2016년으로 상이함.
출처: OECD, "Adult education and learning",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AL).

평생학습 참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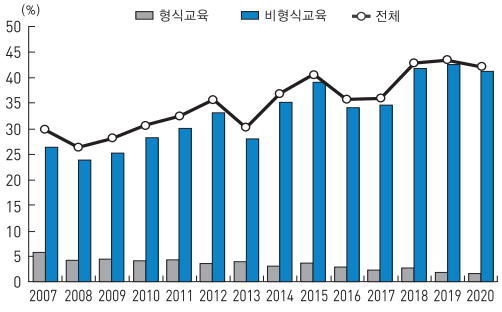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율을 시기별로 볼 때,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연도에 따라 증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해온 양상을 보인다. [그림 Ⅳ-27]의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07년 29.8%

에서 2020년 42.1%로 10%p 이상 증가했다.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교육 형태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5.7%에서 2020년 1.6%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비형식교육 형태는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서,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을 의미한다. 기관 등록, TV 강좌, 인터넷 강좌,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방식의 교습이 포함되며, 비형식형태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6.4%에서 2020년 41.3%로 크게 증가하였다. 평생학습 참여율의 증가가 주로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증가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7] 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20



주: 1) 평생학습 참여율={(형식교육 참여자+비형식교육 참여자-동시 참여자)/성인 인구}×100.
2)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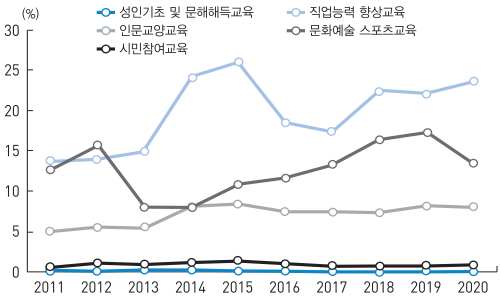
[그림 Ⅳ-28]의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직업능력향상 교육은 2020년 현재 23.7%의 참여율을 보여 평생학습 영역 중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 대비 7.6%p 감소한 2016년, 1.0%p 감소한 2017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능력향상 교육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은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으로서, 2020년 참여율은 13.5%이다.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은 2014년 8.1%에서 2019년 17.3%까지 참여율이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인문교양 교육 참여율은 8.1%를 나타냈고, 2011년-2013년에는 5%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4년 이후에는 7-8% 수준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시민참여 교육, 성인기초 및 문해해득 교육 참여율은 각각 0.8%, 0.1%로 미미한 수준이

[그림 Ⅳ-28]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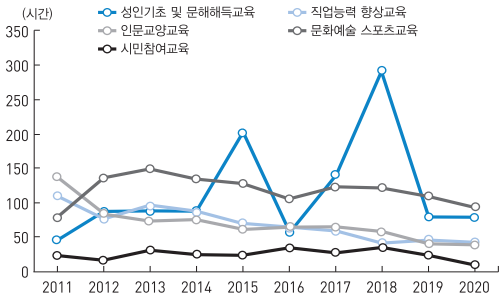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며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Ⅳ-29]의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영역 중에서 참여자의 참여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이다.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에 참여한 경우 2020년에 평균 93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다음으로 참여시간이 많은 영역은 성인기초 및 문해해득 교육이며(78시간), 직업능력향상 교육(41시간), 인문교양 교육(39시간), 시민참여 교육(9시간)의 순이었다.

특히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경우 참여시간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의 111시간 참여에 비해 2020년에는 41시간으로 교육 참여시간이 거의 1/3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참여자는 늘어난 반면, 참여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시간이 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대상의 직업능력향상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시간이 짧은 재직자 대상의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보다 확대된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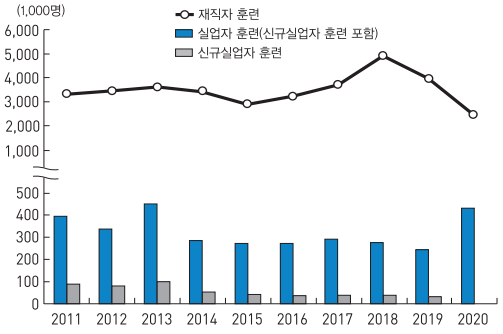
[그림 Ⅳ-29]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시간, 2011-2020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30]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직자 훈련 참여 인원은 2011년 334만 1,118명에서 2018년 491만 4,227명까지 증가한 후 크게 감소하여 2020년 246만 7,8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훈련 참여 인원(신규실업자훈련 포함)은 같은 기간 39만 2,855명에서 2019년 24만 2,845명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43만 1,4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Ⅳ-30]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 참여인원, 2011-2020



주: 1) 재직자 훈련=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유급휴가 훈련+ 근로자 능력개발지원+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
2) 실업자 훈련=신규실업자 훈련+전직실업자 훈련+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출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각 연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의 격차 문제

〈표 Ⅳ-3〉은 인적 특성별로 2013년과 2020년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을 살펴본 것이다.

성별을 보면 여성(17.1%)보다 남성(30.1%)의 참여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더 높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보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다.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고 절실한 층에서 오히려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표 Ⅳ-3〉 성인의 인적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 2013, 2020

(%)

	2013	2020
성		
남성	18.6	30.1
여성	11.1	17.1
연령		
25-34세	19.5	30.8
35-44세	16.7	29.1
45-54세	11.7	21.7
55-64세	10.1	14.8
학력		
중졸 이하	8.1	12.7
고졸	12.4	14.2
대졸 이상	19.2	32.2
경제활동 상태		
취업	17.6	28.0
실업	19.0	20.0
비경제활동	6.3	4.9
월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10.1	19.1
150-300만 원 미만	12.7	15.0
300-500만 원 미만	15.1	21.4
500만 원 이상	19.5	27.3
지역		
서울 및 광역시	14.8	23.0
중소도시	13.9	23.7
농어촌	17.7	25.6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에서 참여율이 더 높은 편이며,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5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교육 참여율이 1.4배 가까이 더 높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이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표 Ⅳ-4〉의 취업자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에서도 확인된다. 비임금근로자(14.8%)보다는 임금근로자(34.7%)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더 높고, 같은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임시직보다 상용직, 시간제보다 전일제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성이 높거나 직업 위세가 높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높은 반면, 직업 위세가 낮은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어, 종업원수 10명 이하 영세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은 300명 이상 대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속기간별로는 근속 5-10년까지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

〈표 Ⅳ-4〉 취업자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 2013, 2020

(%)

	2013	2020
전체	17.6	26.6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9.3	34.7
상용직-전일제	21.1	39.2
상용직-시간제	19.3	24.3
임시직-전일제	13.5	19.5
임시직-시간제	9.8	10.3
비임금근로자	13.0	14.8
직업		
관리자	18.9	5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2	41.9
사무종사자	21.4	45.3
서비스 종사자	14.2	23.5
판매종사자	8.4	9.3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21.6	15.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9.8	30.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0	24.0
단순노무종사자	6.7	12.6
직업군인	28.4	53.5
직장 규모		
10인 이하	11.8	16.1
11-49인	16.1	36.8
50-99인	24.4	42.5
100-299인	27.2	55.3
300인 이상	31.2	57.7
근속기간		
1년 미만	18.4	27.9
1-5년 미만	16.9	26.9
5-10년 미만	16.0	29.2
10-15년 미만	18.0	25.1
15-20년 미만	15.8	24.5
20년 이상	21.4	24.8
월평균임금		
142만 원 미만	11.5	12.7
143-333만 원 미만	18.2	25.5
333-475만 원 미만	22.1	33.5
475-712만 원 미만	25.6	36.4
712만 원 이상	26.3	38.9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율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임금수준이 높은 취업자일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 월평균 임금 712만 원 초과 취업자의 경우 142만 원 이하 취업자에 비해 3배 이상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표 Ⅳ-3〉과 〈표 Ⅳ-4〉 모두에서 2013년에 비해 2020년에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미 상대적으로 많은 직업능력향상 교육 기회가 주어지던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음을 시사한다.

인적자본이 높은 층에 교육훈련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은 층, 즉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높은 층이 교육훈련을 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은 상황은 어떤 나라에서건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강하게 드러난다.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해서, 평생학습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이다.

〈표 Ⅳ-5〉에 제시된 한국과 OECD의 임금근로자 특성별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가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연령별로 살펴보면, 24세 이하, 25-44세 연령층은 격차가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45세 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73.9%이지만, OECD의 평균은 그보다 11%p 정도 높은 84.8%에 달한다.

학력별로는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81.4%로 OECD의 평균 74.4%보다 높지만, 고졸 또는 고졸 미만의 임금근로자의 참여율은 각각 47.7%와 24.2%로 OECD의 평균 52.3%와 36.3%보다 크게 낮다. 특히, 고졸 미만의 저학력 임금근로자의 참여율은 격차가 무려 12%p에 달한다.

직종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과 준전문사무직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각각 79.4%와 63.7%로 OECD의 평균 73.7%와 53.7%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단순직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27.0%로 OECD 평균 34.0%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위세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경우 70.9%로 OECD 평균 59.8%보다 10%p 정도 높은 반면, 비정규직은 그보다 훨씬 낮은 48.2%이며, 이는 OECD 평균 53.1%보다 낮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도 OECD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도 우리나라는 OECD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 25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83.5%로 OECD 평균 70.4%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250인 이하 규모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에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표 Ⅳ-5〉 한국과 OECD의 임금근로자 특성별 직업능력 향상 교육 참여율 비교, 2012

	참여율(%)		참여율 차이 (%p)
	한국	OECD 평균	
연령			
24세 이하	89.5	91.8	-2.3
25-44세	100.0	100.0	0.0
45세 이상	73.9	84.8	-10.9
학력			
고졸 미만	24.2	36.3	-12.1
고졸	47.7	52.3	-4.6
대졸 이상	81.4	74.4	7.0
직종			
단순직	27.0	34.0	-7.0
준전문기술직	43.6	43.1	0.5
준전문사무직	63.7	53.7	10.0
전문직	79.4	73.7	5.7
고용형태			
정규직	70.9	59.8	11.1
비정규직	48.2	53.1	-4.9
기업규모			
250인 미만	54.7	55.7	-1.0
250인 이상	83.5	70.4	-13.1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참여율 차이=한국 참여율-OECD 평균 참여율.
출처: OECD,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PIAAC), 2013.

직업 관련 평생학습의 성과

직업 관련 평생학습의 성과를 참여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 파악할 경우, 그 성과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 관련 평생학습이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에 도움이 되었는지,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고용안정(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3점(보통)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Ⅳ-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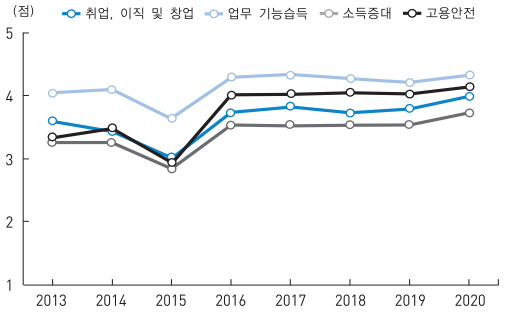
가장 최근 조사연도인 2020년의 응답 결과를 보면,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가 4.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안정(4.14점), 취업, 이직 및 창업(3.99점), 소득증대(3.72점)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 관련 평생학습이 당장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지만,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로 연결되기까지는, 즉각적인 기술습득과 비교할 때 다소의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2015년에 큰 굴곡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질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림 Ⅳ-32]의 1인당 GDP 및 지니계수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도 직업 관련 평생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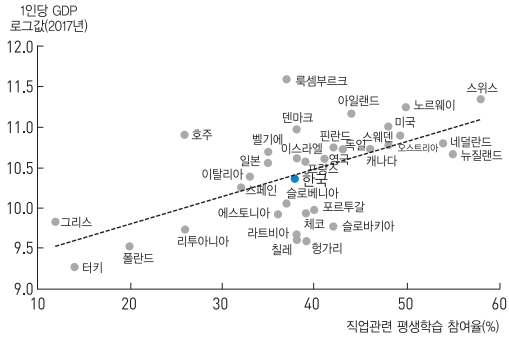
[그림 Ⅳ-31]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도움 정도,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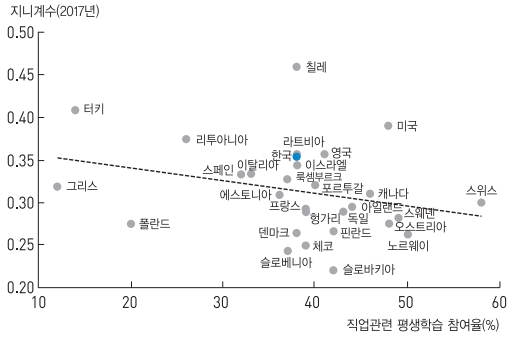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32]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및 지니계수의 관계, 2017

1)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2)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과 지니계수



주: 1) 직업 관련 평생학습참여율과 지니계수는 OECD 자료 활용.
2) 1인당 GDP는 World Bank 자료 활용(당해년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의 성과가 확인된다. 평생학습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가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여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